

# 'K-발효관광' 중심도시 순창

### 고추장마을 명소화 사업 추진... 골목정원·야간경관·발효체험 결합 관광거점 조성

순창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고추장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총 6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순창군의 대표 관광자원이자 장류산업의 상징인 고추장민속마을을 새롭게 재장비해 전통 발효문화와 관광, 체험,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명품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추장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발효테마파크와 장류산업특구를 연계해 'K-발효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순창이 보유한 전통 장류문화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의 핵심은 고추장민속마을의 관광 기능 강화다. 우선 마을 내 골목길을 활용한 '골목가드닝 조성사업'을 통해 8개 테마정원을 조성해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나간다. 총 3,415㎡ 규모의



순창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고추장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색 있는 골목정원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골목갤러리 조성사업'을 통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고추장마을만의 독창적인 야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 편의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노후된 장류체험관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빈집을 활용한 쉼터 조성과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다양한 관광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자고', '알자고', '팔자고', '하자고' 등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떡볶이 페스타 개최, 발효식품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고추장마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관광 도슨트 양성 등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개시

### 순창군, 숙박·체험·식음료·쇼핑 등 46개 혜택지 할인 제공

순창군이 8일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앞서 순창군은 한국관광공사 주관한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선정됐으며, 혜택지 등록과 시스템 구축, QR 스캐너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8일부터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순창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참여업체와 관광지에서 QR 코드를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순창군은 총 46개 업체 및 시설



을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지로 운영한다. 분야별로는 관광 2개소, 숙박 6개소, 체험 7개소, 식음료 24개소, 쇼핑 7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1,000원 할인 △순창발효테마파크 입장료 20% 할인 △강천힐링리조트 단체할인을 적용 △지역 식음료 및 체험업체 할인 등이 제공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 킥스타트사업단-청년도전지원사업단, 업무협약

남원 킥스타트사업단(단장 고정환)은 지난 5일 남원시 청년도전지원사업단(단장 정인화)과 지역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남원형 킥스타트 지원사업'과 구직단별 청년, 미취업 청년, 취업 취약 청년뿐 아니라 이직 의사가 있는 재직 청년 및 졸업 예정 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양 기관은 청년 상담, 프로그램 연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년들의 사회 진입 기반 형성과 직장 적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 발굴 및 상호 의뢰·연계 △공간 및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활동 지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보 공유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고용정책 안내 △킥스타트 사업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 △기타 양 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제100회 춘향제 발전 과제 논의

### 남원시, 제96회 춘향제 결과보고회 열고 주요 성과 공유·방향 모색

남원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96회 춘향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축제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100회를 향한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경식 시장 주재로 부시장, 실국소장, 부시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축제 운영결과를 분야별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와 아쉬운 점을 함께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제96회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관원투원과 요천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100여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국 페어리드 경연대회 도입을 통한 대중깊이 고도화, 국내외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야간콘텐츠 확대, 친환경 축제 운영, 관광객 편의 증진, 동행페스티벌을 통한 지역경제 연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대책 보완, 특설무대 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해외 홍보 확대,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구도심 상권 연계 강화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은 공무원과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결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적극 반영해 제100회 춘향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이번 결과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제97회 춘향제 준비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제100회 춘향제를 향한 중장기 발전 전략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임실군이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실군은 앞서 1차 공모를 통하여 4명을 선정했으며, 이번 2차 신청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농업농지(monguprez.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1986년~2008년생)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2026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임실군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1986년~2008년생)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2026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적기 방제 당부

임실군은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작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적극적인 적기 방제 참여를 당부했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5월 중순까지 4개 주요 과종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충기 방제에 필요한 전용 약제를 배포 완료했으며, 농가의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또한 산림부서 및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2~3월에 일동일 재를 철저히 하고,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약충기 1차 방제를 실시, 8월 상순기에는 2차 방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림부서 및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2~3월에 일동일 재를 철저히 하고,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약충기 1차 방제를 실시, 8월 상순기에는 2차 방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 주민조사·사회서비스DB 구축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부터 사매면을 시작으로 이백면, 주천면에서 순차적으로 주민조사 및 사회서비스 DB 구축에 착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조사원으로 나서 이웃의 생활실태와 복지 수요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3개 면의 각 10인 주민조사원이 방문조사 방식으로 현지 주민을 직접 만나 생활실태,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수요 등을 확인해, 수집된 자료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과 복지 연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이동 제약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어도 행정망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은 마을을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조사 결과를 지역 내 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임실군, 2027년 공급유기질비료 신청 접수

임실군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신청은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농업e지' 누리집 통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신청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등록 농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며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인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속유기질비료 2종인 가축분퇴비, 퇴비이다.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